중국 도끼에 발등 찍힌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의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어“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독감에 걸린다 ”는 신조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을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4조위안을 푸는 내수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자 곧바로 2008년 가을부터 다 죽어가던 석유화학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전환됐고, 최근에는 주식 및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금융긴축에 들어가자 강세를 지속하던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일시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리에스터 체인은 특히 심해 긴축금융을 시행하자마자 중국의 폴리에스터 판매가 생산량의 50% 이하로 뚝 떨어졌고, 동시에 원료인 자일렌, P-X, PTA 아시아 가격이 폭락세로 돌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석유화학제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간소재의 성격이 짙기 때문으로, 중국시장의 움직임이나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중국 중심의 시장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점으로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해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이후 유럽 · 미국 ·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 뚜렷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9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6.1%로 호조를 나타냈고 2/4분기에는 무려 7.9%로 올라섰다.
중국 정부가 4조위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대책이 효력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특히 가전 · 자동차 판매를 확대하는 하향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공공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호황을 연출했다.
특히,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량은 2009년 상반기에 무려 60% 급증했고, 합섬원료 · 합성고무 시장도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은행들이 최근 융자를 억제하기 시작하자 7월에는 석유화학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석유화학제품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은 7월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7% 줄어들어 5억7140만위안에 불과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석유화학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있어 곧 투자가 이어져 3/4분기 또는 4/4분기에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공급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유공장과 연계해 에틸렌 크래커 및 BTX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늦추어왔던 신증설 프로젝트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어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의 물량공세에 맞서야 하는 매우 피곤한 양면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동은 동아시아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운송비를 포함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원료코스트 경쟁력이 동아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나 MEG 수출을 확대하면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Mitsubishi Chemical이 불황국면에 맞서 2012년을 목표로 Mizushima 소재 나프타 크래커를 Asahi Kasei와 통합하는 한편, 2010년까지 카프로락탐 사업, 2011년까지 SM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부 사업은 DSM과 맞교환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의 저코스트 물량공세가 불가피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을 타고 의외의 호황을 맛보았겠지만 꿀단지 생각이 오래가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점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화학저널 2009/9/14>